



국가지정 중요무형문화재

제47호 공시장 김박영씨

“살아있는 한...경기궁 脈 이어야죠”

살아 움직이는 듯한 손맛과 다루기가 까다롭기 이틀데 없어 함께 호흡해야 하는 고감, 활 시위를 잡아당겨 목표물에 적중할 때까지 쉴 수 없는 시선... 국궁의 참다운 매력은 경험하지 못하면 느끼기가 힘들 것이라.

중요무형문화재 제47호 공시장 김박영씨(74)가 만드는 활은 세계적인 명품이다. 가장 견고하면서도 멀리 나가는 궁을 만들기 유명한 우리나라에서, 그것도 전국의 제일 으뜸으로 꼽히는 경기궁의 맥을 잇고 있기 때문.

“지역에 따라 활 만드는 방법이 큰 차이가 있는 것은 아니었지만 오래전부터 경기궁을 최고로 꼽았습니다. 같은 제품이라도 어디서 만든 것이냐에 따라 값이 차이나는 오늘날과 같죠.”

부천 심곡본동 ‘성무정’서 작업

경기궁 명인 김장환 선생 사사

부천 심곡본동에 위치한 활터 ‘성무정’에 작업실을 갖춘 김씨가 경기지역으로 오게 된 것은 지금으로부터 40여년 전이다. 고향인 경북 예천에서 활 만드는 작업을 하다 우연찮게 (부천)소사에서 사람을 구한다는 소식을 듣게된 그는 일생의 결단을 내린다.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당시 활을 만들어 생

계를 꾸러가기란 힘들었던 상황. 하지만 기왕 천업으로 생각한 이 일에 성공하고 싶은 인간적인 욕심을 품었다.

“당시 경기궁의 명인 김장환 선생이 사람을 구한다는 말을 친구로부터 전해 듣고 솔깃했죠. 활 만드는 일에 접어든 이상 좀 더 유명한 곳에서 좋은 활을 만들고 싶었습니다.”

이후 김씨는 부천지역에서 꾸준히 활을 만들어 오다 그 능력과 인품을 인정받아 1994년 국가지정 중요무형문화재 제47호 공시장으로 지정된다. 현존하는 유일무이의 전통 궁인 국궁의 중요성을 중앙정부에서 모를리 없을 터. 육군박물관에 전시돼 있는 활과 석궁, 쇠뇌 복원품 등 상당수가 그의 작품이다.

국궁의 기원은 고려려 산상왕 26년(서기 197~220년)부터라고 전해진다. 초기의 활은 나무로 만든 목궁(木弓)이었으나 꺾고 다듬어 활과 소뿔줄로 보강을 한 끝에 각궁(角弓)이라 불리게 된다. 활 중에서도 중국에서 들어온 물소뿔을 이용한 것과 우리나라 소뿔을 이용한 두 가지가 있었는데 물소뿔이 많이 사용되었다. 소뿔은 물소뿔 보다 짙아 활을 이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고 탄력성도 적어 견실한 궁을 만드는 데 적합하지 않기 때문.

활의 생명력은 ‘탄력·유연성’

물소뿔 이용 전통 ‘角弓’ 제작

“활의 생명력은 탄력성에 있습니다. 탄력성은 활의 상태에 따라 좌지우지 되기도 하죠. 활이 부실해 탄력성이 떨어지면 국궁의 가치 역시 떨어지는 것입니다. 지금도 물소뿔을 이용한 제작법에는 변함 없어요.”

김씨가 제작하는 국궁에는 모두 8가지의 재료가 들어간다. 활의 기본이자 몸통인 대나무를 포함, 참나무는 중앙의 손잡이를 형성하고 활의 양 끝에는 뽕나무가 쓰인다. 또 대나무에 탄력성을 위해 덧대는 소뿔과 소뿔줄을 비롯해 멋스러움을 더하는 소가죽과 중앙 손잡이를 감싸는 삼베, 화살을 쏘는 무명실 등은 활에 생명력을 불어 넣는다.

“국궁은 동·식물성 재료로 만들어진 자연의 산물이죠. 때문에 살아 숨쉬는 맛은 양궁과 비교되지 않습니다. 언제 꿈틀일지 모르기 때문에 어루고 달래야 다룰 수 있습니다.”

활의 제작은 기온과 습도에 영향을 많이 받는다. 때문에 1년 중 10월 중순부터 다음해 3월초까지가 집중적인 제작 기간에 속한다. 물론 재료를 구하고

준비하는 시간을 포함하면 1년의 기간이 꼬박 걸린다.

제작과정은 크게 다섯 단계를 거치는데 재료다듬기로 시작해 부각, 뒤짜기, 심농이, 해궁 등이 그것이다. 먼저 통대나무는 쪼개어 햇볕과 밀실, 참숯 불 등의 환경에서 건조하는 과정을 거친다. 다음으로 뜸과 대패를 이용, 가운데를 약간 좁게 하고 반드시 마디가 있게 하는데 이를 죽편이라 한다. 뽕나무는 납작하게 다듬어 살아 알맞게 구부리고 참나무도 다듬어 삶은 뒤 2개월여를 음지에서 건조시킨다. 물소뿔은 톱으로 썰어 재단해 불에 굽고 바로 퍼 접착할 수 있게 처리해 두며 소의 심줄은 나무망치로 두들겨 살점과 기름을 빼내 실날같이 되면 대뿔으로 빗어 삶이나 기름이 조금도 붙지 않도록 한다. 이렇게 준비된 재료는 민어부레풀이라는 전통 기법의 접착제로 조립된다.

우선 대나무를 모체로 양끝에 뽕나무를 연결, 부레풀로 접착해 불에 쪄이며 구부리고 앞면에 뒤집(원형틀)을 대고 물소뿔을 붙인다. 이때 밀착을 돕기 위해 조막손(접착시의 지렛대)을 놓고 심바(맞줄)를 감는 것이 중요하다. 여기까지가 부각의 단계.

다음으로는 줄과 칼을 이용해 정교하게 다듬는 뒤짜기를 하고 활의 손잡이 부분은 참나무를 붙인다. 네번째 단계인 심농이는 줄 등을 써서 얇게 깎아 내는 과정인데 세심한 주의와 함께 가장 힘이 든 작업이기도 하다. 얇게 깎아낸 몸체의 뒷면에 소심줄을 7겹으로 올리고 다듬는 과정을 거쳐 적정 온도의 환경에서 말린다.

1년 작업 최대 50여점 불과

막내아들 유경씨 가업 이어

활의 성능을 좌우한다는 마지막 작업 해궁은 활에 시위를 거는 작업이다. 이때 균형을 맞추지 못하면 활이 비틀어지므로 고도의 집중력과 장인의 노하우가 필수다.

“혼자 작업을 하면 1년에 많이 만들어도 50여점 뿐입니다. 보기엔 단순한 것 같은 활이지만 안에 배어 있는 균형성과 유연성을 위한 세심한 주의와 정성은 기본입니다.”

사실 공시장이란 명칭은 엄밀히 말해 잘못된 것이다. 활을 만드는 장인을 공장, 화살을 만드는 장인을 시장이라 하는데 옛부터 공장 시장은 개별의 업종이었다. 중요무형문화재를 설정하는 과정



에서 양자를 구분하지 않고 공시장이라는 용어를 만들어 낸 만큼 김씨는 공장에 속한다.

현재 4남매 중 김씨의 막내 아들 김유경씨(33)가 전수자로 등록돼 있는 중요무형문화재 제47호 공시장. 세대를 기치며 가업으로 이어지고 있는 활 만드는 작업이 세계 최고일 수 밖에 없는 이유를 김씨가 설명해 줬다.

“힘들었던 점요? 제가 하고 싶어서, 원해서 한 일인데 힘들다 생각하게 되겠습니까. 그저 천직이라 생각하고 묵묵히 한길만을 걸었음 뿐입니다. 한번도 후회해 본 적 없었고 살아 있는 한은 국궁과 함께 해야죠.”

/이연섭·박노훈기자 nhpark@kgib.co.kr
사진/김시범기자 sbkim@kgib.co.kr

